



# reasons to go to WEST MANHATTAN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이주한 이민자들과 아티스트들은 제각각 자신들의 문화적인 전통을 트렁크에 함께 싣고 와서 그것을 신대륙의 뉴욕, 그중에서도 작은 섬 맨해튼에 흩뿌렸다. 뉴욕의 길 위에서는 영어만큼이나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많이 들을 수 있다. 뉴욕에서는 한국도, 일본도, 브라질도, 멕시코도, 프랑스도, 자신의 문화권을 만들어낸다.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뉴욕이 오랜 역사의 유립 도시들을 위협하며 전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군림해온 것은 이러한 다양성을 하나의 문화로 통일하는 대신, 각자의 잠재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작은 섬은 2백여 년의 짧은 기간에 놀랄 만큼 변화를 거듭했고, 그 변화를 고스란히 길 위에 남겨두었다. 센트럴 파크의 동쪽과 서쪽은 어퍼 이스트사이드, 어퍼 웨스트사이드로 고급 아파트촌이 되었고, 미드타운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중심가가 되었다. 브루클린으로 넘어가는 지하철 라인이 많은 동쪽으로

는 젊은 아티스트와 뮤지션이, 그리고 서쪽에는 점잖은 업스케일의 아티스트들과 관객이 몰려들어 제각각 나름의 문화를 형성한다. 굳이 비교하자면, 이스트 강을 가까이 둔 동쪽은 홍대 앞이나 가로수길의 흥겨움이, 허드슨 강을 가까이 둔 서쪽은 삼청동 뒷길이나 도산공원의 점잖음이 있다고 해야 할까. 2년 전 하이라인 파크가 오픈한 이후 이 분위기가 훨씬 더 탄탄하게 자리를 잡게 됐다. 첼시와 미트패킹, 그리고 그 아래의 웨스트빌리지에는 패션 스토어와 부티크 호텔, 갤러리들이 새롭게 태어나거나 리모델링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허드슨 스트리트에서 9번가와 10번가로 이어지는 서쪽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물류가 드나들고 산업이 부흥하던 뉴욕의 모습부터 현재 세계 최고 아티스트들의 에너지까지 뉴욕이라는 도시가 가진 대담한 역사의 드라마틱한 모습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오래전에 버려진 허드슨 강변의 철길이 '하이라인 파크'로 재탄생한 이후 뉴욕 맨해튼의 서안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전 세계 최고 아티스트들의 전시를 보여주는 첼시 갤러리 지역부터 예전에 공장이나 도축업자들의 공장으로 쓰인 공간을 훌륭히 마켓과 패션 스토어로 변신시킨 미트패킹, 그리고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퇴근 후 향하는 웨스트빌리지의 유명한 레스토랑까지 총망라한 맨해튼 서쪽 가이드.



### 친근한 편집 매장, 오토

‘오토(OTTE)’는 이미 소호에서 잘 알려진 패션 편집 매장으로 이자벨 마랑, 소노, 까르뱅 그리고 자체 브랜드인 오토의 제품을 판매한다. 넓은 공간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소호점과 달리, 웨스트빌리지에 소담하게 자리한 오토는 친근하고 캐주얼한 모양새다. 한국계 미국인인 케이 리(Kay Lee)가 운영하기 때문인지 한국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페미닌하면서도 캐주얼한 스타일의 옷이 많다.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서 시작한 오토는 현재 뉴욕 시 전역에 5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

위치 121 Greenwich Avenue 문의 +1 (212) 229 9424  
영업시간 월~토요일 11:30~19:30, 일요일 12:00~18:00



## Kips Gallery

세계 각국의 작가를 만난다, 킵스 갤러리 '킵스 갤러리(Kips Gallery)'는 2002년 개관한 이래로 미국 작가뿐 아니라,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외국 작가들, 특히 한국의 아티스트들을 꾸준히 뉴욕에 소개해온 갤러리로 유명하다. 이곳의 디렉터 켄 킴(Ken Kim)이 현재 코리안 아트 쇼의 미국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기도 해서, 한국 작가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갤러리로 기능하고 있다. 미국 각지에 열리는 아트 페어에 참여해 전 세계 아티스트의 작품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제는 첼시에서도 제법 자리를 잡은 중견 갤러리로 유명해졌다. 뉴욕에서 미국 작가 이외에도 다양한 작가들을 만나고 싶을 때 들르면 좋은 전시장이다.

위치 511, W 25th Street 문의 +1 (646) 284 5008  
영업시간 화~토요일 11:00~18:00 월요일 휴무



### 예술가들의 성지, 호텔 첼시

풍수지리를 무시할 수 없을 때가 많다. 호텔 첼시(Hotel Chelsea)에는 분명 색다른 땅의 기운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곳에서 책 케루악은 <길 위에서>를, 아서 클라크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집필했으며, 섹스 피스톨스의 시드는 난시를 살해했다. 하지만 호텔 첼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는데, 현재는 내부 공사 때문에 문이 닫혀 있는 상태다. 내부를 구경할 수는 없지만,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예술가들의 이름을 확인하며 그들이 출담배를 피워냈을 문 앞에 잠시 서볼 수 있다.

위치 222, W 23rd Street  
문의 +1 (646) 918 8770





가장 따끈따끈한 뉴욕 레스토랑, 피오라

하루에도 몇 개의 레스토랑이 오픈하는 곳이 뉴욕이다. 분위기, 음식, 디자인, 친절도 어느 하나라도 부족했다가는 뉴욕의 날카로운 언론인들이 펄하고 돌아서 비판의 날을 들이대기 일쑤다. 뉴욕의 요식업계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만연한 곳이다. 이제 막 문을 연 ‘피오라(Piora)’는 현재 웨스트빌리지의 가장 주목받는 레스토랑이다. 심지어 까다롭기 그지없는 <뉴욕타임스>에 호평 일색인 평이 실리면서 이제는 늦어도 한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는 레스토랑이 되었다. 피오라는 한국인 사이먼 김(Simon Kim)의 오랜 노력 끝에 탄생한 레스토랑이다. 장 조지와 토마스 켈러의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한 그는 드디어 이 캐주얼한 다이닝의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7명이 넘는 유명한 셰프 중, 이탈리아계 미국인 크리스 치폴론(Chris Cipollone)을 만났다. “뉴욕은 치열한 도시죠. 캘리포니아가 여유로움에 바탕을 둔 음식을 선보인다면 뉴욕이라는 도시는 사람들의 비판도 끈질기고, 한편 새로운 것에는 한없이 너그럽죠. 저는 이러한 ‘극단성’이 뉴욕 식문화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예민하고, 치열하고, 뾰족한 감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레스토랑이 자신만의 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쉽게 도태되고요.” 셰프 크리스 치폴론의 음식을 먹으면 재료가 무엇인지 맞히는 게임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그날그날 시장에서 구입한 신선한 채소로 요리한 ‘Market Vegetable’. 크리스는 이 메뉴를 흙에서 뿔굴고 있는 채소들을 상상하며 디자인했다. 이 음식을 먹다 보면 포크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재료와 소스, 요리 방법이 궁금해 고개를 가우뚱하게 된다. “제 음식에 한국 음식의 요소가 들어 있긴 하죠. 하지만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의 퓨전이라고 말하는 건 곤란할 것 같아요. 한국을 2주간 여행하면서 알게 된 맛을 제 음식에 반영한 것뿐이죠. 저는 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음식을 알게 되며 느낀 맛의 감각이 즐거웠던 것처럼.” 혹시 레스토랑이 만석이라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잠시 바에서 독특한 향이 담백 담긴 컵테일 한잔 마시는 기회는 놓치지 말자.

**위치** 430, Hudson Street 403  
**문의** +1 (212) 960 3801  
**영업시간** 월~수요일 17:30~22:30,  
목~토요일 17:30~23:30, 일요일 휴무



트렌드세터가 모이는 곳, 스탠더드 호텔

마치 테이بل처럼 여러 개의 기둥 위에 건물이 올라앉은 듯한 독특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 ‘스탠더드 호텔(The Standard Hotel)’은 미트 패킹 지역의 유명한 부티크 호텔 중 하나다. 통유리를 통해 첼시의 길과 허드슨 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을 자랑한다. 호텔에 있는 루프톱 바 ‘르 뱅(Le Bain)’ 역시 뉴욕에서 가장 힙한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야외로 통하는 꼭대기 층에는 목욕탕처럼 작은 수영장 같은데, 이곳에서 주말 밤마다 신나는 파티가 벌어진다.

**위치** 848, Washington Street  
**문의** +1 (212) 645 4646



주말 앤티크 마켓, 앤티크 개러지

맨해튼에서 유럽 스타일의 ‘앤티크 빈티지 마켓’은 점점 자리를 줄여가는 추세인 것 같다. 대부분 브루클린으로 옮기거나 아예 고급 앤티크 상점으로 변화하는 느낌이다. 하지만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첼시에서 열리는 ‘앤티크 개러지 마켓(Antique Garage Market)’이다. 헬스키친의 폴리마켓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1달러짜리 서퍽버스를 타고 움직여도 좋다. 집 안의 작은 집기들부터 가구, 예전 LP판, 보드게임 등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위치** 112, W 25th Street  
**영업시간** 토요일 09:00~17:00



첼시의 핵심 갤러리, 글래드스톤 갤러리

‘글래드스톤 갤러리(Gladstone Gallery)’는 첼시에서 가장 중요한 갤러리 중 하나다. 어마어마하게 큰 전시 공간부터 아주 작은 옷장 같은 공간까지 다양한 전시 공간이 있어 아티스트의 다채로운 작업을 전시하기에 좋다. 이곳에서는 특히 철학적이거나 대범한 작품을 많이 선보이는데, 리처드 프린스, 아니쉬 카푸어, 매튜 바니 등이 모두 글래드스톤을 거쳐간 작가들이다.

**위치** 515, West 24th Street **문의** +1 (212) 206 9300  
**영업시간** 화~토요일 10:00~18:00, 월·일요일 휴무





뉴욕 음식의 시작, 첼시 마켓

‘첼시 마켓(Chelsea Market)’은 뉴욕의 유명한 델리숍들을 끌어안고 있다. 물론 음식 이외에 지역 아티스트들의 벵룩시장을 팝업스토어 형태로 마련하기도 하고, 일부 패션 스토어도 입점해 있지만, 대부분 치즈나 와인, 커피, 요리 도구, 향신료 등을 판매하는 가게들이고, 케이크 전문점, 해산물 전문점, 베이커리, 커피숍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모양새다. 첼시 마켓이 유명한 것은 단순히 음식 백화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안에 숨 쉬는 뉴욕 음식의 역사 때문이다. 이 건물은 실제로 오래 전 ‘내셔널 비스킷 컴퍼니(National Biscuit Company)’라는 공장이었는데, 이곳에서 그 유명한 ‘오레오’를 탄생시켰다. 또 미트패킹이라는 지역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동네는 원래 하이라인을 통해 들어오는 음식물류를 보관하는 창고와 공장, 도축 도매업자들의 공간으로 기능했었다. 현재의 델리 마켓은 역사와 현재를 아우르는 똑똑한 재활용의 모범이 되었다. 길 건너 구골 사무실이 있는 건물도 실제로는 같은 공장이었다. 동네가 동네이다 보니 다양한 TV 푸드 채널들의 사무실도 이곳에 있다. 첼시 마켓에서 랍스터 한 마리를 서서 먹고 나서 건물 밖으로 나와 예전 공장 스타일의 건물들을 둘러보길.

위치 75, 9th Avenue    영업시간 월~토요일 07:00~22:00, 일요일 08:00~21:00



19세기 뉴욕의 정취, 하이라인 호텔

하이라인 파크 앞의 10th 애비뉴에 위치한 ‘하이라인 호텔(The High Lind Hotel)’은 오픈한 지 1년 정도 된 새로운 부티크 호텔이다. 이곳은 1895년, 학생들을 위해 지어진 집으로 영국 대학 스타일의 고딕 양식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호텔로 개조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 그 덕분에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곳곳에 깃든 오래된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뉴욕 맨해튼에서 보기 어려운 작고 예쁜 정원도 있어, 유럽의 부티크 호텔에 온 듯한 기분마저 든다. 19세기 말의 귀족적인 향수를 자아내는 ‘호프만 홀’에서는 패션 행사가 자주 열린다.

위치 180, 10th Avenue    문의 +1 (212) 929 3888



현재 미국 최고의 커피, 인텔리젠시아

아마도 현재 부티크 호텔계 최대 관심사는 어떤 커피숍 브랜드와 손을 잡을 것인가 하는 점인 듯하다. 지난해 포틀랜드에서 탄생한 ‘스텝타운 커피(Stump Town Coffee)’는 뉴욕 1호점을 에이스 호텔의 로비에 오픈했고, 시카고에서 시작하고 현재 미국 커피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텔리젠시아(Intelligentsia)’는 하이라인 호텔 로비와 정문에 뉴욕점을 오픈했다. 특히 우유와 섞이는 부드러운 로스팅의 카페라테는 뉴욕 최고의 맛이라 할 만하다.

위치 180, 10th Avenue    영업시간 07:00~21:00    문의 +1 (212) 933 9736

첼시에서의 브런치, 콕숍

하이라인 파크가 보이는 10th 애비뉴 길 위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콕숍(Cook Shop)’은 개점 시간부터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한다. 로컬 오거닉 식재료를 이용한 아메리칸 다이닝을 추구하는 이곳은 노호의 ‘파이브 포인츠’, 소호의 ‘헌드러드 에이커’를 운영하는 주인이 첼시의 갤러리족을 위해 오픈한 공간이다. 주말 오후에는 패셔너블하게 차려입고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주문하는 <섹스 앤 더 시티> 주인공들이 나타날 것 같은 곳이다.

위치 156, 10th Avenue  
문의 +1 (212) 924 4440  
영업시간 월~금요일 08:00~23:30, 토요일 10:30~23:30  
일요일 10:30~22:00



버려진 것을 버리지 말라 하이라인 파크

만약 당신이 몇 년 전 뉴욕을 방문해 도시 한가운데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센트럴 파크의 크기와 아름다움에 반한 적이 있다면, 다음에 뉴욕에 방문할 때는 ‘하이라인 파크(The High Line Park)’의 색다른 모습을 감상할 차례다. 하이라인 파크는 첼시에서 미트패킹 지역까지 1.6킬로미터에 달하는, 하늘 위의 정원이다. 1934년, 물류를 손쉽게 운반하기 위해 뉴욕을 가로지르는 도시 위의 철도, 하이라인이 건설되었는데, 철도산업이 급격히 쇠퇴하고 하이라인 철도는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 허드슨 강의 전망을 가로막는 흉물스러운 철길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버려진 철길을 공원으로 되살린 사례를 참고해 뉴욕 시에서는 철길 중 일부 노선을 공원으로 만들기로 하고, 2011년 7월 하이라인 파크를 오픈했다. 이곳에서 첼시의 갤러리 골목, 허드슨 강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당신의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다.

위치 Gansevoort Street-W 34th Street,  
10th~11th Avenue  
영업시간 07:00~21:00







#### 비밀로 두고 싶은 가게, 빈티지 스리프트 웨스트

최근 유명하다는 뉴욕의 빈티지 가게에서 실망하고 돌아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제품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탓이다. 빈티지에 열광하는 전 세계 패션 피플이 뉴욕으로 몰려들어 가격을 올려버린 탓일까? 게다가 빈티지 스타일, 펑키 스타일은 어쩐지 맨해튼 서쪽의 분위기와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빈티지 스리프트 웨스트(Vintage Thrift West)'를 발견한 것은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 좋은 공간, 좋은 아지트가 유명해지면 피곤하다. 지난해 4월에 오픈해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가게에서는 손님들의 탄성이 자주 터져 나온다. 태그도 떼지 않은 샤넬 백이 8백90달러에 판매되기도 했다. 오늘 나는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고 태그까지 그대로 달려 있는 에스카다의 가죽 백이 90달러라는 놀라운 사실도 발견했다. 상태가 좋은 빈티지 샤넬, 생 로랑 파리 스카프는 75달러에 판매되고 있고, 사라 제시카 파커가 입었던 것 같은 코요테 퍼빈티지 모피 코트는 2백50달러다. 이렇게 좋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이 유대인 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 사업체이기 때문이다. 이곳의 상품들은 대부분 기부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이곳의 수익금 일부는 다시 자선 사업에 쓰인다. 이미 이스트빌리지에서 10년 넘게 빈티지 스토어를 운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급 브랜드만 모아 몇 달 전 웨스트빌리지에 걸맞은 고급 빈티지 가게를 오픈한 것이다. 그러니 부탁이다. 이곳의 존재는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

위치 286, 3rd Avenue 문의 +1 (212) 871 0777

영업시간 월~목요일 13:00~21:00, 금요일 12:00~해 질 때까지, 토요일 휴무, 일요일 12:00~19:00



####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예술 서점, 프린티드 매터

오전 11시에 문을 여는 서점 '프린티드 매터(Printed Matter)'의 직원들은 이곳에서 파는 책들을 닐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책을 읽었거나, 그림을 그렸거나, 혹은 밴드에서 음악이라도 연주했을 법한 아티스트의 면모를 풍기는 이곳의 스태프들은 서점 한가운데 앉아 자신의 불일을 본다. 손님들은 그들이 일하고 있는 컴퓨터 근처에서 숨을 죽이고 이들이 판매하는 작품과 책 목록을 살펴본다. 프로와 아마추어 가리지 않고 많은 현대 예술가들의 독립 잡지와 책을 판매하고 지원하는 이 서점은 비영리단체로 오랫동안 독립 예술가들의 소통 창구로 기능해왔다. 취재 협조를 요청하니 '아무 때나 와서 맘대로 찍어라'고 쿨하게 이야기하는 프린티드 매터에서는 딱 한마디를 덧붙였다. '사진 찍고 나서 기부금함에 기부금만 내라'. 휴대폰으로 이 독특한 공간을 찍으면서 이곳의 독립 예술가들을 위해 작은 동전이라도 넣어, 폐기 구겐하임은 못 되더라도 작은 기부자가 되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위치 95, 10th Avenue

문의 +1 (212) 925 0325

영업시간 월~수요일 11:00~18:00,  
목~토요일 11:00~19:00,  
일요일 휴무



#### 유럽의 감성과 햄버거가 만날 때, 스포티드 피그

만약 오늘 하루 동안 '북마크'(마크 제이콥스가 운영하는 서점)와 유명한 뉴욕의 컵케이크집 '매그놀리아 베이커리'를 찾아 블리커 스트리트를 헤맸다면 한두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웨스트빌리지의 레스토랑 '스포티드 피그(The Spotted Pig)'에서 지친 다리를 쉬게 해줄 차례다. 영국의 카페나 펍처럼 작고 소담한 공간이 가진 따스함을 품기는 곳으로 프랑스 감성이 느껴지는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로크포르 치즈를 얹은 햄버거에 허브를 넣고 함께 튀긴 가느다란 프렌치 프라이가 인기다. 점심시간에는 한 시간 이상 대기하기 일쑤니 최대한 바쁜 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 캐주얼한 레스토랑의 인기는 미술 랭에서도 별 하나를 부여하며 인정한 바 있다.

위치 314, W, 11th Street 문의 +1 (212) 620 0393

영업시간 월~금요일 12:00~02:00, 토요일 11:00~02:00,  
일요일 11:00~02:00



#### 뉴욕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편집 매장, 오웬

벽면 가득한 종이봉투가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내는 패션매장 '오웬(Owen)'은 FIT에서 패션 비즈니스를 공부하던 필립 살렘(Phillip Salem)이 학교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오웬이라는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 어떤 패션숍을 이끌지 고민했고, 비즈니스맨인 아버지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이를 현실화했다. 아크네, 수노, 3.1 필립 린, 까르뱅 등 현재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를 아우르는 오웬의 의상은 재단이 잘 되고 형태가 잘 잡힌 스타일의 옷이 주를 이룬다. 레더와 실크가 어울려 세련된 기능성을 보여주는 필립 살렘의 큐레이팅을 보면 이것이 파리지연도 런던도 아닌 '뉴욕'의 스타일임을 알게 된다. '미트패킹과 웨스트빌리지는 제가 생각하는 패션 스타일과 가장 잘 어울리는 동네가 아닐까 생각해요. '동네 가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산책하다가 수다를 떨기 위해 들르는 패션 스토어 말이예요.'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현재 가장 주목받는 뉴욕커의 공간으로 거듭난 오웬은 벌써 제2의 스토어를 맨해튼의 또 다른 지역에 오픈하기 위해 자리를 물색하는 중이며, 오웬 자체 디자인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mc writer 손혜영(프리랜서) editor 김지선

위치 809 Washington Street 문의 +1 (212) 524 9770

영업시간 월~토요일 11:00~19:00, 일요일 12:00~18:00

